

[주간] Wall Street 인사이트

이승은 | 연구원 (3705-6237)

- **파월 잭슨홀 발언** 9월 금리인하 재확인. 향후 인하폭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
 -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“통화정책 조정의 때가 왔다”고 발언하자 분석기관들은 연준의 9월 금리인하 전망이 보다 확실해진 것으로 평가. 특히 이번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방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금리인하의 계기가 된 것이라는 의견
 - 또한 파월은 앞으로 연준이 중점적으로 지켜볼 부문이 노동시장임을 표명. 대다수 분석기관들은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이 경기침체까지 반영할 만큼 큰 폭 악화될 것으로 보지 않으나 향후 추가 둔화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상황
 - 현재 9월 연준의 금리인하 폭에 대해 25bp 전망이 우세하나 일부 기관들은 노동시장 상황 여하에 따라 50bp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8월 고용지표의 중요성을 강조
- **해리스 대선후보** 정책 목표점은 있으나 구체화 부족 평가. 경제 정책에도 의구심 상당
 - 지난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수락한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경 정책, 중동, 중산층 경제지원 등 외교 및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. 그러나 대다수 분석기관들은 해리스 정책들이 아직 원칙만 주장할뿐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
 - 일부는 해리스가 지향할 가치들만 제시하고 이들을 잇는 선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
 - 특히 경제 측면에서는 종전 바이든 경제정책과의 차별화 정도, 중산층 지원을 위한 세제 및 주택 정책,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는 기관들이 상당
 - 일부 기관들은 대선후보로 부상한 지 불과 1개월이라 당연하다는 평가도 제기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해리스가 남은 기간동안 구체적인 로드맵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
- **중국 위안화** 위안화 강제 진행은 대내외 요인에 기인. 추가 강세기 부작용 우려
 - 중국 위안화가 8월 들어 달러화 대비 1.4% 강세를 보이면서 금년 진행된 약세폭을 거의 만회하자 분석기관들은 그동안 약세를 저지하던 중국 당국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
 - 위안화 강제 요인으로 국내 수출 호조 외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, 엔화 강세를 지적
 - 분석기관들은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가파른 강세를 막고 변동성도 줄이는 대응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, 만약 강세가 큰 폭 진행된다면 여러 부문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
 - '23년 이후 누적된 위안화 섯포지션의 언와인딩, 수출업체 및 투자자들의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, 수출경쟁력 약화,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을 우려